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예비 농업인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강화

거시경제 동향

201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2012년 경제전망(수정)

기획 정보

스위스 직불제의 현황과 특징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12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

예비 농업인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강화

※ 본 자료는 4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성공 농업인, 맞춤 현장교육에서 답을 찾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예비 농업인**이 선배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장 15개소를 추가 지정**

※ 현장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형 교육으로 교육 후 교육내용을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현장실습교육**은 지난 2009년부터 농업인, 농고·농대생,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약 3,500명이 교육 이수**

- 선진영농 기술습득 등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활성화 기대

-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한 **현장실습교육 제공**

·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은 자본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품목(미나리, 조류(축산), 장아찌 등)을 교육하는 실습 교육장이 선정되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

○ **현장실습교육장**은 전국대표실습장과 지역품목실습장으로 구분하여 **64개소가 운영 중**

- 이번에 지정된 현장실습교육장은 농업경영체(법인), 실습교육기관, 농업 마이스터대학, 농과계 대학 등 현장실습 교육시설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된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1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농업인은 국고 70%, 농고·농대생은 국고 100%의 교육비를 지원**

○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5년까지 100개소로 지정을 확대**할 계획

※ 지정계획(누계): ('11) 64개소 → ('12) 79 → ('15) 100

<현장실습교육장 운영사례>

◇ **홍로원(지역품목실습장)**

- 시설: 교육농장(25,000평), 선과장(120평), 현장실습교육장(38평, '09년) 등
- 교육현황: ('10)교육생 50명, 교육시간 540시간
- 교육내용: 고품질 사과생산기술교육, 전업농과 창업농으로 구분 단계별 교육, 오전 현장교육, 오후 야간 이론교육, 1인 1년(240시간)으로 편성

◇ **천안연암대(전국대표실습장)**

- 시설: PTC+형 실습돈사, 착유 및 우사시설, 산란계사
- 교육현황: 농대생 축산실무(90시간/30명), 양돈 실무(30시간/10명), 농고생 축산실무(90시간/20명)

◇ **한가원(전국대표실습장)**

- 시설 / 교육현황: 한과문화박물관, 한과문화교육관 등 / 한과가공생산(90시간/20명)

거시경제 동향_1

201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4월 1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2012년 3월 수출물가**는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보험세 유지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7% 하락**

- **공산품**: 1차금속제품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석유화학·고무제품, 일반 기계·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 월 대 비				전년동월대비			
		12월	'121월	2월	3월	12월	'121월	2월	3월
총 지 수	1000.0	0.3	1.1	-0.6	0.5	2.5	4.6	2.1	0.0
		<-0.8>	<1.3>	<1.3>	<0.5>	<2.3>	<2.3>	<1.6>	<0.1>
농림수산물	5.1	0.2	-0.4	-2.7	-2.7	20.3	18.3	12.3	7.6
공 산 품	994.9	0.3	1.1	-0.6	0.5	2.4	4.5	2.0	-0.1
석유화학·고무제품	193.1	-0.1	4.0	1.3	1.6	7.5	10.1	6.3	1.7
1차금속제품	72.8	-1.5	0.4	-0.8	-0.5	-1.6	-0.8	-2.7	-5.4
일반기계·장비제품	66.6	1.2	0.4	-1.6	0.8	2.5	4.7	2.8	2.4
전기장비제품	53.8	1.4	0.3	-1.1	0.3	0.7	1.3	-0.6	-0.8
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제품	361.5	0.8	0.0	-1.8	0.1	-4.6	-0.3	-2.2	-2.1
운송장비제품	144.4	0.7	-1.6	-1.3	0.2	1.8	2.4	0.9	0.1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수입물가지수**

○ **2012년 3월 수입물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원자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7%, 전년 동월대비 3.5% 각각 상승**

※ 원/달러 평균환율: 2012.2월 1,123.35 → 2012.3월 1,125.90(전월대비 0.2% 절하)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2012.2월 116.2 → 2012.3월 122.5(전월 대비 5.4% 상승)

- 원자재: 천연고무, 우피 등 농림수산품이 오르고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광산품 가격도 올라 전월대비 3.8% 상승
- 중간재: 1차비철금속제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은 내렸으나,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9% 하락, 소비재는 전월대비 2.4% 상승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기중치	전 월 대 비				전년동월대비			
		12월	'12.1월	2월	3월	12월	'12.1월	2월	3월
총 지 수	1000.0	0.2	0.8	0.5	1.7	7.1	7.9	5.2	3.5
		<-1.0>	<1.0>	<2.6>	<1.9>	<6.7>	<5.3>	<4.6>	<3.5>
원 자 재	278.2	-0.5	0.8	1.8	3.8	18.3	16.8	12.5	10.4
농림수산물	30.2	-3.8	1.7	-0.6	1.8	-7.0	-8.0	-11.9	-13.1
광 산 품	248.0	-0.2	0.7	2.0	4.0	21.4	20.0	15.5	13.2
중 간 재	556.7	0.7	1.1	-0.3	0.2	0.3	2.4	0.3	-1.6
석유제품	34.8	3.8	6.6	6.2	5.7	4.5	14.0	18.2	14.2
화학제품	87.4	-1.3	1.2	-0.1	0.6	3.8	6.2	3.0	-0.8
비금속광물제품	14.0	0.7	-3.2	-1.6	0.1	-4.1	-4.0	-6.1	-8.3
1차철강제품	59.4	0.9	-0.2	-1.7	0.1	-1.3	-0.8	-4.8	-4.5
1차비철금속제품	39.3	-0.6	3.8	2.0	-1.6	-9.8	-7.6	-9.2	-9.8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54.6	1.1	-0.4	-2.5	-0.4	-0.4	2.6	0.1	-1.5
자 본 재	98.6	0.7	-0.7	-1.9	-0.9	1.9	3.0	1.1	-1.0
소 비 재	66.5	0.6	0.5	0.0	2.4	0.4	3.1	3.2	3.9

주: <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거시경제 동향_2

2012년 경제전망(수정)

※ 본 자료는 4월 1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수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경제성장

○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2월(3.7%) 전망보다 낮은 3.5%를 보일 전망
- 2013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지출부분별 성장률

-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교역 조건 악화, 지난해 4/4분기 실적저조(전기대비 △0.4%) 등으로 12월 전망(3.2%)에 비해 증가율 하락
-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완만한 증가 예상
- 수출은 유로지역 경기부진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구 분	2011			2012 ^{o)}			2013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8	3.4	3.6	3.0	3.9	3.5	4.2
						<3.7>	<4.2>
민간소비	2.9	1.6	2.3	1.8	3.8	2.8	4.1
						<3.2>	<4.0>
설비투자	8.9	-1.1	3.7	5.0	7.3	6.2	6.4
						<4.2>	<7.0>
건설투자	-7.1	-3.0	-5.0	2.1	3.4	2.8	2.3
						<2.8>	<2.4>
상품수출	14.5	6.9	10.5	3.8	5.8	4.8	9.4
						<5.0>	<10.2>
상품수입	11.8	5.7	8.7	2.6	6.3	4.5	9.1
						<5.2>	<10.4>

주: < > 내는 2011. 12월 전망치

□ 고용

- 2012년 중 취업자수는 35만 명 늘어나 12월 전망(28만 명)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 실업률은 지난해(3.4%)보다 낮은 3.3% 내외 수준
- 2013년에는 취업자수가 32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3.3% 정도로 전망

□ 물가

-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12월 전망(3.3%)보다 낮아진 3.2%로 전망
 -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2.6% 및 2.2%로 예상(12월 전망 3.3% 및 2.7%)
- 201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3.1%,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2% 및 2.5% 상승할 전망

□ 경상수지

-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265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큰 폭 축소될 전망
 -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지난 12월 전망(130억 달러)에 비해서는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
- 2013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25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

기획 정보

스위스 직불제의 현황과 특징

※ 본 자료는 스위스 직불제와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스위스 농업직불제의 특징

- 스위스는 연방헌법과 농업법에 규정된 농업의 역할과 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1999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된 농업직불제 운영
 - 1999년 새로운 농업법(New Agricultural Act)을 통해 전 경지면적과 축종에 대해 직불제 시행
- 위반 벌점을 합산하여 직불금 누진적 삭감 원칙
 - 농가는 직불금 수혜의 대가로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라는 다양한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열과 의무이행상황을 직접 점검
 - 위반 시 첫 해는 벌점만큼 직불금을 삭감하지만, 4년 이내에 2회 위반 시 벌점을 2배로 메기고, 3회 이상 위반 시 벌점을 4배로 계산 하는 누진방식

< 직불금 삭감 비중 >

구 분		태만에 의한 위반	우연한 위반	고의적인 위반
일회성 위반	지속성 없음	5%	15%	25%
	지속성 있음	10%	25%	50%
중복위반		2배 삭감	2배 삭감	직불제 제외

출처: 스위스 농업직불제 삭감지침(2005)

-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추세
 - 2009년 기준, 스위스 전체 농식품 관련 예산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 하는 비중은 74.3%에 달해, 농가당 직불금은 약 5,600만 원(한국의 42배), 농민 1인당 직불금은 약 2,000만 원(한국의 40배), 농지 1ha 당 직불금은 320만 원(한국의 3.5배)에 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예산에서 농업직불금 차지 비중은 15.9%, 농가당 직불금은 약 130만 원, 농민 1인당 직불금은 약 50만 원, 농지 1ha 당 직불금은 약 92만 원 수준

< 스위스 직불제 예산 비중 >

단위: 100만 CHF

구 분	농식품 예산(A)	직불제 예산(B)	직불제 예산비중(B/A)
1999	4,028	2,285	56.7%
2000	3,575	2,114	59.2%
2005	3,608	2,464	68.3%
2008	3,550	2,545	71.1%
2009	3,692	2,742	74.3%

□ 일반직불제 유형 및 직불단가

- **(면적직불제)** 모든 농경지에 면적에 비례하여 면적직불(Area payments)을 지급
 - 경작가능면적 ha 당 직불금 지급액은 연간 약 135만 원이며, 개활지 혹은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간 ha 당 약 80만 원 지급
- **(방목직불제)** 방목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소, 물소, 들소, 말, 낙농염소, 낙농양은 마리당 양 90만 원, 기타 양과 염소, 사슴, 라마는 60만 원
-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지역의 축산에 대해 별도의 직불금 지급
 - 구릉지역은 마리당 약 39만 원, 산악지역 45만 원 등
- **(경사지직불제)** 경사지 농업에 대해 지급
 - 구릉 및 산악 지역에 50a 이상 경작하는 경영주 대상으로 경사도 18~35% 일 경우 ha 당 53만 원, 35% 이상 80만 원 지급

□ 생태적 직불제 유형 및 직불단가

- **(생태보상직불제)** 일반직불제의 준수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
 - 연방정부나 주, 시가 운영하는 농장이나 법인도 포함. 소득과 재산 한도, 최대 허용 가축 수 등을 넘어선 경영자도 수혜자격으로 이행 조건을

준수할 경우 대상 경지의 종류에 따라 ha 당 연간 20만 원에서 364만 원의 직불금 지급

- **(조방생산직불제)** 조방적으로 곡물생산에 대해 지급
 - 정부기관이 추천한 곡물을 20a 이상 심은 뒤 생장조절물질이나 살균제, 자연기능 조절제, 살충제 등 사용 없이 수확 시 ha 당 약 52만 원 지급
- **(유기농직불제)** 유기농업 법령에 따라 작물 생산하고 보증기관에 의한 감독을 받은 경작지에 지급
 - 개활지 124만 원/ha, 일반 농경지 15만 원, 포도, 과일, 허브, 담배 등 115만 원/ha
- **(환경규정이행직불제)** 상기의 조건을 최초로 만족시켰을 경우 지급
 - 지역에 따라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이

□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

- **기존의 스위스 농업직불제**는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생산을 유인하는 역기능** 있었음.
 - 따라서 **소득정책과 가격정책을 분리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직불제도가 **생산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생태직불금(ecological direct payment) 제도를 도입하여 다원적 기능을 강화함.**
 - 이는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추세 속에서 농가의 소득과 경영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되 다원적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함**을 구체적으로 규정(연방헌법 104조)
 - 첫째, 농업의 다원적 편익(multi-functional service) 제공을 보상하기 위해 **생태성과 증명(proof of ecological performance)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규정함.
 - 둘째,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동물 친화적이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생산방법 장려** 의무화

- 기타 연방정부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및 품질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도한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며, **농업연구와 교육을 장려**하고 **자산 통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스위스 직불제의 성과

-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1999년 이후 농가교역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 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나,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감소하지 않고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 추세**
-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지역에서 50% 상회**
 - 평야지대의 경우,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세('99년 37% → '09년 19%)이나 반면,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증가세('99년 41% → '09년 54%)

< 호당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

단위: 천원, %

구 분	농가소득	직불금	농업소득	비농업소득
1999	101,026 (100.0)	41,096 (40.7)	37,603 (37.2)	22,327 (22.1)
2000	121,340 (100.0)	41,839 (34.5)	56,888 (46.9)	22,612 (18.6)
2005	106,968 (100.0)	54,602 (51.0)	25,022 (23.4)	27,344 (25.6)
2009	125,272 (100.0)	68,063 (54.3)	23,471 (18.7)	33,738 (26.9)

주: 평야지대 기준

- 결론적으로 **스위스는 직불금 정책**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함께 농업생산 활동으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태적 경관유지, 인구 분산적 정착 등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함.

참고문헌: 임정빈 외(2011)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 GS&J
이수연 외(2011) '스위스와 한국농업직불제의 비교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8(4)
임정빈 외(2011)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GS&J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16일~2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부, 중국산 배추수입...농업계 '반발'

- 농식품부, 4.13일 **중국산 배추 긴급 수입 결정에 농업계 반발**. ▲배추 도매값 상승세 ▲봄배추 예상 생산량 감소 ▲저온 영향에 따른 봄배추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4월 중순 이후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추 수입 결정. **농식품부**, 이번 수입 결정이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원료 구입난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일 뿐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농업계**, **날뛰는 가격을 상승세로 모는 것은 부적절, 농업 관련 통계수치가 기관마다 달라 농가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서도 지적. 또한, **김치업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김치업체들은 저온창고를 확보해 원료 배추를 가득 저장한 상태**이므로 **원료난을 겪는다는 점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

자료: 농민신문(2012.4.16).

□ 안돈·수입돈육 모두 적체 '비상'

-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돈육 재고 증가 심각**.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원사 24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산 돈육부위별 재고조사** 실시 결과 **2월 말 기준 3만5천13톤으로 전월대비 18.8% 증가**. 서울 및 경기 보관창고 9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수입육 재고조사** 실시 결과 **2월 2만8천521톤으로 전월 대비 6.5% 증가**. 소비 안 되는데 도축물량·무관세 수입물량 늘었으며, **삼겹살 제외한 안심·갈비·전지 재고량은 심각한 수준**

자료: 축산신문(2012.4.16).

□ 과일·와해 국내 생산여건 악화...수입산 판진다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 농작물 생산여건 악화로 인해 농산물 수입 붐물. 과일값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단가로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 소비지 과일시장 장악, 농식품 수입액 전년대비 3.13% ↑, 과실류 수입액 전년대비 22% ↑, 국내 과일값 강세와 함께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대형마트의 수입과일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도 증가해 수입과일이 국내시장 잠식. 성수기를 앞둔 화훼시장 또한 수입산 일색. 이와 관련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가중·이상 한파 등으로 국내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며, 계절적으로 수입이 마무리 돼야 할 품목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유통업계 관계자)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4.16).

□ 물가에 밀린 '쌀 고품질화정책'

- 묵은쌀·수입쌀 방출 이후 2011년산 신곡 브랜드쌀 판매부진 심화. 국내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정당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온 '쌀 고품질화 정책' 급속히 약화. 2011년산 신곡 20kg 소매가는 보통 4만4,000~4만8,000원, 브랜드쌀의 경우 5만4,000~5만9,000원까지 거래되는 반면, 구곡 혼합곡은 20kg들이 한 포대에 2만9,000원으로 1만5,000~3만원까지 가격격차 발생...저가미 시장잠식. 저가쌀 시장 주도의 부작용으로 올 1월~3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11년산 신곡 판매물량(비RPC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0% ↓, 경기지역 RPC의 1월~3월 판매물량(비RPC 포함)은 35.3% ↓, 충남지역 RPC 판매량도 29.5% ↓. 2014년 쌀 관세화 개방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농가 생산 꺼려 쌀산업 위기 우려

자료: 농민신문(2012.4.18).

□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노지채소(배추, 무)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위해 계약재배하는 38개소(배추 29, 무 9)에 총 200억 원 지원. 대출금리는 무이자, 대출기간은 3년 이내, 대출기간동안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 대출액의 220% 이상 배추·무를 수매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며 배추 12만4,000톤, 무 2만 톤 규모의 계약재배 수매가 예상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4.19).

□ 바뀐 농약법 농가 대다수 '금시조문'

- 밀수품 사용·잔류농약 검출 처벌강화 등 올 1월 말 시행한 농약관리법은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농업인에 대한 벌칙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돼 현장선 내용 잘 몰라 농가 피해 우려. 농업인이 밀수농약 등 미등록 농약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안전사용기준 위반한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가 피해 없도록 홍보 강화 필요

자료: 농민신문(2012.4.18).

□ 위성으로 경지면적 조사

- 통계청, 인공위성 영상을 판독해 농업통계를 생산하는 원격탐사기술이 올해부터 농업통계 조사에 첫 적용돼 단계적으로 기술 실용화. 통계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될 전망. 오는 9~12월 경지면적 조사를 실시, 2013년 1월에 첫 농업통계 발표. 벼 재배면적 조사의 경우 2015년부터 실용화, 2014~2015년 복한 벼 재배면적 조사와 경지면적 조사에 원격탐사기술을 실용화할 계획.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 전부터, 일본은 2010년부터 경지 총조사와 경지면적 조사에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

자료: 농민신문(2012.4.20).

연구 지원 정보_1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본 자료는 4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조사개요

○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2011. 12. 1. 0시 현재
- 조사 기간: 2011. 12. 1. ~ 12. 20.(20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의 조사기준시점 현재 모든 농가, 임가 및 어가
 - ※ (농업) 3,371조사구, (임업) 847조사구, (어업) 675조사구
- 표본조사구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농림어가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 어가로 확인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농가

- 2011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 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0. 12. 1.~2011.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11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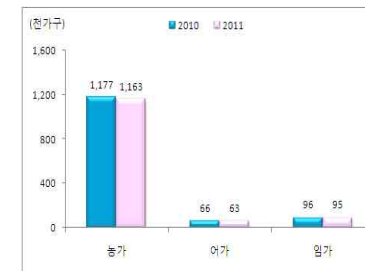
□ 임가

- 2011년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2006. 12. 1.~2011.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10. 12. 1.~2011. 11. 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0. 12. 1.~2011. 11. 30.) 직접 생산(채취업을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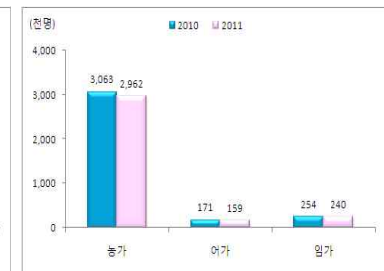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2011년 12. 1. 현재 **농가는 116만 3천 가구, 임가는 9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각각 1.2%, 1.6% 감소
- 2011년 12. 1. 현재 **농가인구는 296만 2천명, 임가 24만 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3.3%, 5.3% 감소

< 농림어가 가구규모 >



< 농림어가 인구규모 >



-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농가 2.55명, 어가 2.5명**이며, 소가족화 속도는 전체가구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가구원수(2010 인구주택총조사): 2.7명

- 농가의 48.7%, 어가의 51.0%가 **2인가구로 가장 주된 유형**으로 나타남.

※ 전국 2인가구 비율(2011 추계가구): 23.3%

-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11.4%) 보다 빠르게 진행

- 고령화율은 농가 인구가 33.7%로 전년대비 2.0%p 증가, 어가 인구는 25.4%로 전년대비 2.3%p 증가

- 전체 농가의 **54.2%(63만)가 전업농가**이며, **겸업농가는 45.8%**(53만 3천) 차지

- 전업 농가 비중이 높은 시도는 경북(63.0%), 경남(59.5%), 전남(58.9%) 순이며, 겸업 농가 비중은 제주(62.9%), 특광역시(59.9%), 경기(59.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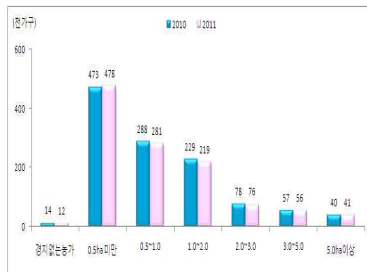
○ **경지규모가 1.0ha미만 농가는 75만 9천 가구(65.3%)**, 3.0ha이상 농가는 9만 7천 가구(8.3%)로 나타남.

- 0.5ha미만 농가는 전년대비 1.1%, 5.0ha이상 농가는 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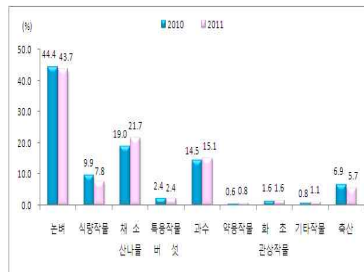
○ 영농형태별 농가는 논벼(43.7%), 채소·산나물(21.7%), 과수(15.1%), 식량작물(7.8%) 순으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해 식량작물(-21.7%), 축산(-18.6%), 논벼(-2.8%) 농가는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채소·산나물(12.9%), 과수(2.9%) 등은 증가

< 경지규모별 농가 >



< 영농형태별 농가 구성비 >



○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1천만 원 미만 농가가 65.4%**로 대부분인 가운데 1억 원 이상인 농가도 2.4%(2만 8천 가구)를 차지

- 전년에 비해 판매금액이 3천~5천만 원은 10.5%, 5천~1억 원은 6.3%, 1억 원 이상은 8.0% 증가

○ 판매금액별 영농형태를 보면 3천만 원 미만에서는 논벼, 3천~1억 원은 채소·산나물, 1억 원 이상은 축산 농가가 많이 분포

연구 지원 정보_2

2012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 본 자료는 4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1/4분기(3.1일 기준) 가축 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2,940천 마리로 전 분기보다 10천 마리(0.3%) 감소**하였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전년동기 보다는 59천 마리(2.0%) 증가**

- 지속적인 한우 산지가격 약세에 따른 **사육포기** 농가 및 **암소 도축 증가**로 **전분기 대비 감소**

· 한우 산지가격(600kg 수컷): ('10. 9~11) 5,010 → ('11. 9~11) 3,168 → ('11. 12~'12. 2) 3,205천원

○ **젖소 사육 마리 수는 404천 마리로 전년동기 보다 8천 마리(2.0%) 증가**

- 지난해 초 **구제역 여파**로,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원유수취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사육의향이 고취되어 **사육 마리 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원유 수취가격(낙농진흥회): ('11.3) 852.32 → ('11.12) 995.16 → ('12.1) 993.96 → ('12.2) 990.81원/ℓ

○ **돼지 사육마리 수는 8,851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680천 마리(8.3%), 구제역이 발생한 전년동기 보다 1,815천 마리(25.8%) 각각 증가**

- 급속한 모돈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 **구제역 이후 재입식 농가의 증가**에 기인

· 모돈마리수: ('11. 3) 732 → ('11. 12) 903 → ('12. 3) 950천 마리

· 생산마리수 ('10. 12~'11. 2) 3,657 → ('11. 9~11) 4,130 → ('11. 12~'12. 2) 4,474천 마리

· 사육가구수: ('11. 3) 57 → ('11. 12) 63 → ('12. 3) 64천 가구

○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63,199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774천 마리(1.2%), 전년동기 보다 2,174천 마리(3.6%) 각각 증가**하였으며, **육계 사육 마리 수는 69,387천 마리로 전분기 보다 7,048천 마리(9.2%), 전년동기 보다는 545천 마리(0.8%) 각각 감소**

- 산란계 사육마리 수 증가는 지속적인 **계란가격 호조, 학교 급식 재개** 등 **계란 수요 증가**를 예상한 입식 증가에 기인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10. 2)1,104 → ('11. 2)1,391 → ('11. 12)1,304 → ('12. 2)1,217원

- **육계 사육마리 수 감소는 육계가격 약세**에 따른 입식 감소에 기인

· 육계 산지가격(생체 1kg 3개월 평균): ('09. 12~'10. 2) 2,182 → ('10. 12~'11. 2) 1,866 → ('11. 12~'12. 2) 1,604원

○ **오리 사육 마리 수**는 13,092천 마리로 **전분기 보다 357천 마리(28%) 증가**

- **산지가격 회복세,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입식 증가에 기인

< 축종별 사육 마리수 동향 >



< 그 밖의 연구 지원 정보 >

○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 쌀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1ha당 70만원 지급, 수확기 쌀 값이 목표가격(쌀 80kg 기준 17만 8,300원)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